



# 줄탁의 인연에 대한 기억 <하> 한인숙 (원주시 가현동)

난 그 속에 홀로 존재했다. 무용수가 공연장자락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 이런 것이었을까. 그러나 내게 한 사람, 나 자신에게 배반당했다는 그 분열된 생각 속에서 나를 지켜준 이, 어머니가 있었다. 오직 어머니만이 내가 그곳에 혼자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현실로 끌어내려 줬으나, 받아들일 수 없었던 현실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팠다. 현실이란 그런 것이었다. 내가 갈 수 있는 국립대 중에 나를 받아줄 만한 4년제대가 없다는 것, 내가 눈 여겨 봐둔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상황.

그럼에도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언젠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상을 듣고 공주대 사범대에 특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이없어 하는 선생님의 시선을 뒤로 하고 원서를 받아들고, 새발열자를 타기 위해 나간 기차역에서 기차표를 받아들었다. 끝내는 갈 수 없었던 기차 시간 앞의 절박함. 그런 불확실함 속에 발길을 돌려 사람들의 시선으로

간 만에 진짜 22년을, 1년 365일이라는 법칙성에 따른 22년을 살아버린, 아니 산 어떤 예를 내려보았던 거야. 그 순간 눈물이 그렇게도 날 수 있는 것일까 싶게 많이 울고 '아 이 사람의 인생이 참 가엾구나.' 싶으면서 심장에서 따뜻한 피가 싹 퍼져 나가는 기분이 들었어. 내가, 내 인생을 보고 있는데 그 순간부터 나는 그저 한 아이의 인생을 보는 듯하고 앉아있는 또 다른 내가 내려다보이는 듯싶었어. 법당이 밝아지는 듯했고, 나에게서 빛이 나는 건 아닐까를 생각했지. 그리고 법당에서 나올 때는 나뭇잎 하나 하나에 연민이, 때때로는 거야. '가련하구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가련하구나.'

나는 사실 이 때의 경험을 얘기하면 말하는 순간 날아가 버릴 듯하여 없었던 일들로 돌변할까봐, 말이라는 게 그렇게 허무해 꼭꼭 가슴 속에 담아두고 있었다. 그러다 얼마 전 내 친한 언니에게 털어놓던

의 시간이 바로 2년이 지난 지금이다. 도망쳐버린 현실에서 나는 한사람의 가슴속에 내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했고 의지하려 했기에 결국에 그 무거운 물레바퀴를 지어 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피한다고 도망간 그 자리가 무너져 내려앉은 날, 나는 아직 내가 열 아홉 살 이후로 한발자국도 나가 지 못했음을 깨달아야 했다.

나는 그제야 내 주위에는 깨쳐버린 달걀 껍질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

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들이 깨어지는 걸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 그렇게 나는 내 안의 집을 짓지 않고도 평온을 되찾아 돌아와 사람들 틈에 서었다. 그리고 그 때의 경험에 대한 미련으로 학교로 돌아와 불교 철학사를 공부하고 있다. 지금껏 내 파괴된 세계를 마주할 때마다 의탁했던 그 세계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었다.

그리고 내 경험을 누군가 그건 울고 난



## 내 방황이 '카타르시스'라 해도 그 느낌 소중한 안고 살아가리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기위해

돌아가야 했던 차유스러움, 그 새벽이 나의 현실이었다. 아무도 내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잠시 실수를 했고 그래서 원래의 자리를 잃었지만, 나 자신만 확실하게 믿으면 다시 길이 보일 거란 말을 해주지 않았다. 가난을 대신하기 위해 약해진 자존심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듯이 나를 내려다보는 시선 속에 짓밟힐 뿐이었다.

그렇게 과부의 몸으로 아들하나 딸 여섯을 홀로 키우신 어머니 - 헌금이 아까워서 서 그 어떤 신에게도 끝내 의탁하지 않고 홀로 걸어오신 어머니 - 밑에서, 다섯째 딸인 나는 이렇게 불교문턱에 서서 문을 두드렸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어머니의 말씀이 되었음을 나 또한 가슴 깊숙이 알아야 했다.

**세 번째 기억**

"불과 세 시간이었어. 눈을 감고 있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 난 그때 분명 태어날 때부터의 순간이 지나가기 시작했다고 믿어 - 내가 살아온 22년의 결코 짧지 않은 날들이 하루하루 스쳐가는데, 그건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 물론, 22년의 시간에 중요한 것만 지나갔잖지. 근데 난 세 시

것이다. '유체이탈'이란 말을 썼지만 이것은 어찌 내 경험을 말할 수 있을까. 얼마 전 여름방학 때 나는 절에 갔다. 대학을 2년 다녔고, 그 기간동안 사랑을 했고 떠나버린 사랑에 아파했고 그렇게 절에 가서 쉬고 싶었다. 난 사실, 사랑은 한낱 인생의 한 부분일 거란 생각을 했었다.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들 - 너무나 확신에 찼던 나에 대한 믿음들 - 그러나 나의 사랑이 떠나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때로는 인생의 전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건 또 하나의 세계이고 사랑이 떠난 건, 그 세계의 파괴라는 것을 말이다. 대학을 올 때도 그토록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내가 살아온 세계의 파괴된 현장을 인정하지 못했던 나 자신에게 있었음을. 당시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도망쳐버린 것이다.

앞에서 깨어났을 때, 다른 세계가 펼쳐진 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었던 - 독화살을 맞으면 살아남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어디서 독화살이 날아와 왜 내가 맞아야 했는지에 대해 생각하며 - 그렇게 나의 세계는 파괴되고 나는 죽어가고 있었음을 몰랐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까지

아가기 위해 내 안에 다시 집을 짓기 위해 절에 왔었다. 단절된 공간에서 깨우기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선택한 것이 절이었다.

그때 만난 스님에게 부탁해 절에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거기엔 단절이 아닌 제한된 인간관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내 세계를 커녕 자꾸만 과거가 가졌던 그 세계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던가, 저녁에 법당에 앉았었다 나는 이 경험을 했다. 그리고 나를 세운다는 것이 또 얼마나 험난한 것인가를 보았다 - 내가 파괴된 세계를 받

후의 카타르시스라고 말해도 그 때의 느낌을 소중히 안고 살아가려 한다.

"줄탁의 인연", 줄이란 병아리가 알 속에서 자라 세상 바깥으로 나오려고 알 껍질을 쪽쪽 빼는 것을 말하고, 탁이란 어머니 닭이 그 순간을 알고 바깥에서 알을 탁탁 짚는 것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어느 시인의 수필에서 읽은 글이 생각난다.

이제 내게 있어 불교와 맺어졌던 그 순간들에 대한 세 가지 기억이 풀려났다. 말할 수 있으면 상처는 낫는 것이란 생각을 한다. (끝)

## 키레이 수행일기

수행은 육진 경계에 이르지 않아야 되고 간절하게 염원이 상속되게 염불하면, 모든 경계가 고요해지고 마음이 텅 비면 자성이 저절로 나타나는 법이다. 초심자들은 몸과 마음을 잘 단속하고 틀이 쉬고 내 쉬는 호흡에 공부를 점잖아 한다.

이 한숨 끊어지면 저승이니 사대육신이 흩어지는 그 순간 한없이 큰 고통이 오고 업장의 큰 물결이 휘몰아쳐도 정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의 이런 수행관은 깊은 잠에 빠져도 생사와 같이 여여해야 공부 잘된다는 믿음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이 공부의 의욕이 극락정토 연꽃에 화생해 무생법인 이루고 보살의 몸으로 모든 중생 제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한다. 그것이 바로 '바른 수행의 길'이고 '수행자의 삶'이라고 믿는다.

이처럼 수행에 확신을 느끼기까지는 항상 염불삼매에 들어 오로지 정토를 발원한 청화 스님의 영감이 지대했다. 말세 중생들에게 "가장 수승한 수행



전병웅  
위원장한의원 원장

위에서 열심히 정진했다. 하지만 번뇌 망상 상기병은 극복했으나, 무기공 단계에서 헤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스님을 찾았으나 대책이 없었다.

그러던 순간,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던 결전이나 정통 조사의 어려움에 의지해 수행하라 했던 옛 선사들의 말씀이 떠올랐다. 특히 1989년에 사두

## 청화 스님 권유로 염불수행에 매진 상기병 등 장애극복... '몽중일여' 노력

문이 염불이야"라고 염불선을 강조하던 스님의 말씀은, 짧은 날 내가 출가의 꿈을 갖도록 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은 출가의 원력을 접게 했다. 그리고 난 출가의 한없는 아쉬움과 사무치는 눈물을 흘리며 눈 쌓인 태백산을 내려왔다.

이후 난 출가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세속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곧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고 열심히 수행을 했다. 그러나 상근기의 원력 보살이 아닌 이상 세속에 장애를 받고 끄달리게 됐다. 간절했던 신심이 약해지고 오욕에 조금씩 물들어 갔다.

그러던 중, 지난 1991년 초겨울 쯤, 성철 스님과 인연은 그런 나를 바꾸게 했다. 온몸에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며 "이 멍청한 놈! 정신 안 차리고 뭐 노"하며 난 스님에게 크게 호통을 받았다. 삼배를 올리고 쳐다보시지도 않고 등을 돌렸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순간 심년의 삶을 깊이 참회하며 수행의 고삐를 죄게 하는 참이었다.

이후 난 청정계와 법명을 주신 스승 불암사 서암 스님을 찾아뵙고, 본격적으로 수행을 했다. 화두를 받고 좌복

었던 청화 스님의 책은 가슴에 뭉친 응어리를 풀리게 했다.

중생의 무지한 아집과 법집으로 보낸 20년. 그 긴 세월을 돌아보면, 수행에 진전이 없이 헛되게 지나간 세월을 보냈구나 하는 안타까움에 다시 출가의 원력을 세웠다. 그러나 청화 스님은 세속에서 불법을 펴라는 당부의 말을 내게 주셨다.

난 신명나게 수행을 했다. 우주의 대생민 진여불성(자성)을 이치적으로 먼저 깨닫고, 진리가 생명이란 마음으로 일심으로 마음공부를 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청정무비한 직광을 간절하게 관했다. 또 정혜를 균등하게 해 삼매에 쉽게 들 수 있도록 했다.

오랜 염불수행은 세속에서 수행하기에 쉽고 공덕이 제일 크게 확실하게 성불할 수 있는 길이란 확신이 들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난 염불수행을 해오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지만, 깨달음을 향한 원력만 큼은 절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항상 불법을 가슴에 새기고 정진해나갈 것을 맹세해본다.

# 당 하 당 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 당뇨 혈당 측정기 (1Set)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이논만큼 치료할 수 있다" (책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인슐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복용 15~20일후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복용후 효과 없음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운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안희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 관절과 연골에

글루코사민 포르테

관절염 치료제 BDX-1(특허 제0429595호)

BDX-1은 2000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총 10억여명의 개발비를 투자하고 중소기업청이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하여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카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활성평가 연구실에서 30여 차례 이상의 효능 및 독성실험 등 임상 실험을 거쳐 완료된 관절염 치료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원료입니다.

2004년 4월 국내 특허를 획득(특허 제0429595호 : 생약추출물을 포함하는 관절염치료 및 예방용 조성물의 제조방법 및 그 조성물) 하였습니다.

- 골관절염
- 통증을 감소 및 활동성 향상
- 관절손상 보호
- 항염증 작용
- 혈액과 관절에 쉽게 흡수되어 항염증, 진통작용
- 활동성을 향상
-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장식, 사고 등으로 인한 관절계통의 상처 치료

관절과 연골을 튼튼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 포르테정은 엄격한 품질관리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00mg 60정 x 2

"글루코사민 포르테"를 1개월만 복용하면 놀라운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2~3개월만 복용하면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주)케이팜제약

주문 및 상담전화 : 02-598-9834

# 東熙스님 梵唄作法特講

- 일정: 1월 31 ~ 22일 (첫날은 오리엔테이션)
- 장소: 동희범음회 연구소 및 慈忍寺
- 위치: 4호선 성신여대역에서 아리랑 고개 방향 도보로 5분 거리 (영화의 거리 테마공원 옆)

문의전화 02)923-8180 / 017-396-1644

#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우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초급, 고급
- 내용: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정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법, 오행처방법, 침술주요요법(一鍼法), 배교정법, 임상실습
- 개강: 2005. 1. 3. (주·아간반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이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 유일의 강좌로 년연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 사암침술학회

장소 : 종로 3가 지하철 12번 출구 역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